#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10년, 청년·기업 동반성장 디딤돌

## 전국 최초 도입…청년 8791명·기업 5719개사 참여
## 미취업 청년 3~5개월 취업 연계·진로 설계 경험
## 종료 2개월내 취업률 30%…6개월내 취업률 절반

전국 최초로 도입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이 시행 10년을 맞아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지역 기업의 인재 발굴을 지원하는 대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18기 드림청년 성과공유회.

전국 최초로 도입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이 시행 10년을 맞아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지역 기업의 인재 발굴을 지원하는 대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지역 청년 8791명과 지역 사업장 5719곳이 참여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미취업 청년과 지역 기업을 연결해 청년들이 3~5개월간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은 현장에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구체화하고, 기업은 임금과 직무교육 등을 지원받으며 필요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경험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참여한 청년 7940명 가운데 2388명이 일경험 종료 후 2개월 이내 취업해 30.1%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일경험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률은 50.1%로 나타났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14~17기에 참여한 청년 1824명 가운데 914명이 일경험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일경험이 단순한 직무 체험에 그치지 않고 취업과 진로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조직 적응과 재무관리, 표현력·소통 능력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한 공통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청년과 사업장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12명의 '드림 매니저'를 권역별로 배치해 참여자 상담과 사업장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참여 청년들의 교류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드림넷'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모두 129차례의 모임이 열려 청년들이 일경험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고민을 공유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2017년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이후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선도 사례로 평가받아왔다.

2018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선도 사례에 선정된 데 이어 2020년 '지역사회 혁신정책 나눔터' 혁신사례로 뽑혔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분야 대표사례로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정책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기업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에 10년째 참여하고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열정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일하면서 직장 분위기도 밝고 청년 친화적으로 변화했다"며 "새로운 시각을 가진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을 지속 운영해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며 진로를 찾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한국 AI 연구 수준 '세계 7위'…반도체는 4위

### 한국연구재단, 미국 핵심·신흥기술 학술경쟁력 분석

## AI·반도체 세계 상위권…전남광주, '산업 연결' 승부수
## 지역 인프라·반도체 연계…기업 성장·일자리 창출해야

한국의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연구 수준이 세계 상위권에 오른 가운데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전남광주 지역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산업인 만큼 전남광주가 지역에 마련된 AI 기반과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한국연구재단의 '미국 핵심·신흥기술(CET) 중 5개 분야의 학술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5년 한국의 AI 연구출판물은 7만4117편으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AI 연구출판물 가운데 한국이 차지한 비중은 2.97%였다.

AI 연구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었다.

한국의 AI 관련 연구출판물은 2016년 3182편에서 2024년 1만5062편으로 약 4.7배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21.5%로 세계 평균보다 높았다.

연구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FWCI도 1.60으로 세계 평균 1.0을 크게 웃돌았다. 연구 규모뿐 아니라 연구의 영향력에서도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반도체는 한국의 강점이 더욱 뚜렷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반도체 연구출판물은 5만9209편으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반도체 연구출판물의 6.49%를 차지했다. 연구 영향력을 보여주는 FWCI도 1.26으로 세계 평균을 웃돌았다.

AI와 반도체 모두 세계적인 연구 기반을 갖춘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력을 실제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전남광주도 이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첨단3지구를 중심으로 AI 융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국가AI데이터센터 등 관련 시설을 구축해 왔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을 통해 AI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데이터 산업도 키울 계획이다.

AI 반도체를 지역 산업과 연결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AI 기술은 자동차와 에너지, 헬스케어 등 지역의 기존 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공장의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고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거나 설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AI 반도체다.

AI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의 중요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전남광주가 AI와 반도체를 따로 키우기보다 두 산업을 하나로 연결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나온 AI·반도체 연구가 지역 기업의 제품 개발로 이어지고, 개발된 기술이 지역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 빼놓을 수 없다.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 산업에만 기대기보다 지역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AI 관련 부품과 장비, 소프트웨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반도체·인공지능에서 양적·질적 균형이 양호한 강점을 보인다"며 "인공지능·반도체는 양적·질적 균형과 산학 연계가 비교적 견고한 분야로, 현재의 강점을 지속하기 위한 안정적 지원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아이돌봄서비스, '농협 앱'서 신청하세요

## 올원뱅크, 가입·서비스 신청·정부지원금 조회 등 가능

NH농협은행 모바일 앱 '올원뱅크'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의 하나로 NH농협은행과 협력해 13일부터 NH농협은행 모바일 앱 'NH올원뱅크'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포털과 전용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평소 사용하는 NH올원뱅크 앱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 가입과 신청, 정부지원금 조회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이용자는 NH올원뱅크 앱에서 바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앱 안내에 따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공공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청소년 자원봉사(Dovol) 신청과 이력 조회 서비스를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 등 4개 은행 모바일 앱으로 개방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세계김치연구소는 지난 6~7일 김치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제5기 'We-키움(위키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김치연구소, 젊은 연구자에 현장 체험·멘토링

## 'We-키움' 연수 프로그램 성료

세계김치연구소는 지난 6~7일 김치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제5기 'We-키움(위키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We-키움'은 세계김치연구소의 영문 약칭인 WiKim(World Institute of Kimchi)의 발음 '위킴'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우리(We)가 직접 김치 분야 학문 후속세대를 키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2년 시작된 이후 매년 운영되며 김치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 연구인력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식품·바이오 분야 국제학술대회와 연계해 세계김치연구소가 주최한 구두발표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초청해 연구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참가자들은 세계김치연구소의 연구시설과 실험 과정을 경험하고 김치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한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가자에게는 세계김치연구소장 명의의 수료증도 수여된다.

올해 연수에는 모두 8명이 참가했다.

(사)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 대학원생 구두발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정유진 석사과정생(고려대 융합생명공학)을 비롯해 최우수상 수상자인 김윤정 석·박사통합과정생(서울대 식품생명공학), 우수상 수상자인 신새연 박사과정생(전남대 동물산업학)이 참여했다.

또 (사)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 학부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팀인 김선유·김민정·박세희·조연우·황혜원 학부생(이화여대 식품생명공학)도 함께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